

# 전남교육청, 선생님과 학생

## 함께하는 역사캠프 '성료'

독립운동 역사 현장 체험하며 3·1운동 100주년 뜻 되새겨



전남의 교사와 청소년들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둘러보고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남 역사교사모임, 역사고전읽기모임, 전남독도교육실천연구회가 공동 주관한 '제13회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역사캠프'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서울, 수원에서 열렸다.

'3·1운동 100주년, 민주와 평화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역사캠프에는 전남 지역 교사, 학생 60명이 참여해 일제 치하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며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겼

다.

첫째 날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오리엔티어링을 통해 평소 교과서로만 접할 수 있었던 국보급 유물의 실제 모습과 역사적 의미 등을 학습했다. 또 독도 골든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국의 역사왜곡에 대응한 교사와 학생의 역사의식 함양을 모색했다.

둘째 날 오전 일정은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경교장, 덕수궁, 옛 러시아공사관 등 정동 일대와 서대문형무소 등을 답사하며 근·현대의 역사를 체험했다. 교사 팀은 서촌일대의 유적며 교육, 감가진 교육 등을 답사하며 역사 속 격변 속에서 다양한 행보

를 보인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을 함께 고민했다. 오후에는 다시 '사제동행'으로 남영동 민주 인권 기념관 등을 답사했다.

마지막 날에는 3·1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병화, 태러가 정점에 이른 제암리 일대를 둘러보고,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과 대항리 평화역사관을 답사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것으로 캠프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로 13번째 개최되는 역사캠프는 생생한 역사체험 활동으로 전남교육청의 대표적인 역사교육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평화·독립·인권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위경종 교육과정과장은 "진정한 반일, 극일은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알고 과거를 현재와 미래 사회에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번 체험을 통해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의식의 깊이를 더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구례 중동초, 내 마을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운영



전교생 26명의 소규모학교인 구례 중동초등학교가 3~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 내 마을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24차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동초는 글로벌 인재로 자라기 위해 '나'에 대해 더 잘 알고 주변

의 다양한 자연환경과 문화재 등을 지리산 마을학교 연계해 내 마을 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참여학생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마을을 탐방했는데 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인 '상위 마을 탐방기' 그림책을 만들었다.

또, 구례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화엄사'와 '운조루'를 조사해 화엄사와 운조루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엮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마을 어르신들과 인터뷰도 하고 다양한 동·식물과 자연환경을 관찰하고 보고 느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내가 살고 있

는 마을을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보냈다.

수업에 참여한 3학년 한 학생은 "그동안 대중 보고 넘어갔던 우리 마을이 새롭게 보였으며 마을 공부에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윤미숙 교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더 가까워지고 '나'와 '나의 고향'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 아버지교실 '프렌디 플레디, 2차 모집

광주시교육청이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4차시에 걸쳐 관내 아버지 학부모 40명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연구원 소강당에서 2019 아버지교실 '프렌디 플레디 2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있는 아버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일과 후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최근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아버지 역할 중요성 및 자녀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시대별 아버지의 역할변화, 성격유형에 따른 학습코칭법, 미래형 인재 역량에 필요한 성공경험 및 검증코칭기반의 대화 활용법 등 각계각

층의 전문 강사들이 가족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에 관심 있는 아버지 학부모들의 참가 접수는 11월 1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받는다. 문의사항은 광주시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학부모참여팀(062-380-4838)으로 하면 된다.

## 목포교육청, 청바지 프로젝트 성료



목포교육지원청이 주최하고 청소년, 학부모 지역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한 청바지 프로젝트가 지난 19일 청소년과 시민 5,000여명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또, 목포의 미래인 청소년의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와 기성세대가 힘을 모아 함께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목포교육참여위원회, 지역 인사,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성인들이 청소년들 속으로 들어가 함께 원을 만들고 힘을 모

아 한 초동학생을 들어 올리는 청바지 퍼포먼스로 시작했다.

청소년이 목포교육의 주인공이다 라는 주제의 퍼포먼스를 통해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탈피하고 바른 인성과 꿈을 갖춘 미래 지역의 주인공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지역사회가 학교 안과 밖에서 힘을 모아 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관내 소속 학교 외 35개 기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

에 참여한 다문화, 진로 체험, 과학 및 SW, 마을학교 등 75개 체험 부스와 끼와 재능이 넘치는 31개 공연팀의 무대 공연이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특히, 목포상동초 학생과 지역 할머니가 함께 한 '하나이름 합창단' 공연, 학교 밖 청소년의 랩 공연, 청소년 문화를 다룬 뮤지컬 공연은 세대 간 어울림 방향과 청소년 문화에 대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 놓치지 않아야 할 교육계 화두에 대하여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목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은마를 사람들이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교육 체험과 공연에 동참한 청소년, 시민의 행복한 웃음과 함성 속에서 목포교육의 미래를 밝힐 등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바른 인성과 꿈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교육생태계 조성에 목포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 광주시교육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28일부터 5일간

광주시교육청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 동안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시교육청 산하 625개 기관(학교)이 '체험위주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재난유형에 대한 현장훈련 및 토론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토론훈련은 '식중독 발생에 따

른 학생안전 확보 및 대처방안', '한파에 따른 학교시설 대규모 등과 수습 훈련', '해의 학생제협학습 중 발생한 교통사고 수습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현장훈련은 '빛고을유치원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훈련'과 '민방위 연계 지진대피 훈련', '건국초등학교 실형실 폭발 및 화재 발생에 따른 대피훈련', '불시소집훈련' 등이 실시될 예정이며 훈련 넷째 날인 31일에 실시되는

'건국초등학교 현장훈련'은 장휘국교육감이 주관하는 훈련으로 학부모 안전한국훈련 체험단, 동림119안전센터,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소방훈련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유관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 주민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